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80원 하락한 1,304.00원에 마감
------	------------------------------

4일 환율은 전일대비 1.80원 하락한 1,30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9.40원 하락한 1,296.40원에 개장했다. 간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급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295.60원까지 레벨을 낮추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이후 낙폭을 점차 축소하면서 위안화 약세와 미국채 금리 반등에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으며 1,304.0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0.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9.3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96.40	1306.00	1295.60	1304.00	1301.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89.12	892.92	884.24	885.3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20.61	1422.80	1408.58	1412.7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09	-7.03	-13.72	-25.82
	결제환율(수입)	-1.35	-5.91	-12.14	-22.9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달러화 반등에 ...1,30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4.00) 대비 6.55원 상승한 1,308.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이번 주 후반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발표 관망 속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보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다. 이에 간밤 달러 인덱스는 전일보다 0.43% 상승한 103.660을 기록했고, 전일 서울 한시 마감 무렵보다는 0.3%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

언에 급락했던 미국채 금리도 낙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며, 2년물 금리는 9.49bp 상승한 4.6415%, 10년물 금리는 6.61bp 상승한 4.2664%를 기록했다. 아울러 나스닥종합지수가 0.84%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된 모습을 보인 점도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또한 금일 환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8.00 ~ 1316.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91.6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55원 ↑
	■ 美 다우지수 : 36204.44, -41.06p(-0.1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5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